

다산포럼



조영철 고리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경제학자다. 케인스는 한때 세계 경제를 조율하는 해계모니 국가였던 영국이 급속히 쇠락하던 시대에 살았다. 케인스는 영국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처방을 제시했지만 결국 침몰하는 대영제국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불황 시기의 높은 실업률은, 실업자가 게으르고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을 고집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효수요 부족 때문이란 케인스의 설명은 유명하다. 케인스는 금리를 내리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총수요 확대 정책으로 1930년대 영국 경제가 당면한 대공황과 실업이라는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영국 경제가 쇠퇴하는 이유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보았다.

영국은 산업혁명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초의 산업국가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케인스가 경멸한 세습 자본주의

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영국 자본주의는 혁신 기업가가 아니라 경영권 세습이 지배하는 나라, 타성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수구 보수주의의 나라가 돼 버린다.

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은 창업 기업가들에 의한 엄청난 혁신들이 붓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밴더빌트의 철도회사, 카네기의 U.S. 스틸,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포드자동차 등 현대적인 거대 기업들이 속속 등장한다. 당시 영국의 대기업이라고 해 봐야 수백 명에서 수천 명 규모의 고관고만한 기업이었던 반면, 미국의 대기업은 영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였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수가 6만 명 수준이었을 때,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는 2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기업이 성장했다.

현대적인 인사관리는 미국 철도회사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 자동차 회사들의 경우 공장제 수공업 방식으로 숙련 노동자들이 달라붙어 자동차를 만들 때, 포드자동차는 컨베이어 시스템의 대량생산 방식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했다. 산업혁명으로 성공한 영국이 고리타분한 세습 자본주의 국가로 정체되어 있을 때,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던 미국은 혁신적인 창업 기업가들에 의해서 현대적 법인 자본주의를 만들어 낸 것이다.

당시 영국의 경영권 세습 기업인들에 대한 케인스의 인상은 아둔하고 게으르

다는 거였다. 케인스는 정력과 상상력을 가진 혁신 기업가가 기업을 창업하면, 그 아들은 경영권을 이어받아 손쉽게 적당히 경영하다가, 손자가 이르러 파산한다. '3세대 세습경영 주기 이론'을 확고하게 믿었고, 더 나아가 기업 차원을 넘어서 자본주의 경제가 파탄에 빠지는 원인도 세습주의에 있다고 보았다. 케인스가 유동성과 단기 수익성만을 추구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면 지주 계급처럼 금리 소득자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은 상속과 세습에 기초한 영국 금융자본 계급을 경멸한 은유였다. 케인스는 영국을 망치는 것이 엘리트주의 자체가 아니라 세습에 기반하고 있는 '아둔한' 엘리트주의라고 보았다.

이처럼 능력과 관계없이 창업자의 아들이나 손자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세습하는 관행이 고착화되면서, 영국은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창의적인 사회 혁신기제가 무너졌고 결국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사학자들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영국이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절대왕정의 재량권 침해를 받지 않는 사유재산권 제도를 확립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영국의 선진적 사유재산권 제도가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의 기반이었지만, 세습 자본주의 시대에는 혁신을 가로막는 수구세력의 기반이 돼 버리고 만 것이다.

1960~70년대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핵심은 이병철·정주영

같은 창업 기업가가 한국 경제를 휘젓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능력주의가 아니라 세습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재 우리나라 100대 부자 대부분은 재벌 2세나 3세들이다. 최근 저수성가형 부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성공한 분야는 게임산업, 화장품, 네이버, 다음 카카오, 쿠팡 등 대부분 재벌 기업과 거리를 할 필요 없이 시장에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B2C(Business to Consumer) 분야다. 한국에서 B2B(Business to Business)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오라클과 같은 창업 대기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재벌기업의 독과점과 단기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 탈취 등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에서는 B2B 분야가 B2C 분야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B2B 분야에서 벤처기업 신화가 나오지 못한다면 한국경제 발전은 한계가 뚜렷하다.

한국은 지금 케인스 시대의 영국과 너무나 흡사하다. 화웨이, 알리바바, BYD 등 창업 기업가가 주도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세습 자본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얼마 전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재벌 2세·3세들이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 하는 '아둔한'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이들에게서 한국 경제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가?

社說

금호타이어 중국에 헐값 매각 막아야 한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산업은행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매수권 행사 포기나 한발 물러났던 박 회장은 상표권 사용 불허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맞선 산업은행은 채권 만기 연장을 할 필요 없이 시장에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B2C(Business to Consumer) 분야다. 한국에서 B2B(Business to Business)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오라클과 같은 창업 대기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재벌기업의 독과점과 단기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 탈취 등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에서는 B2B 분야가 B2C 분야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B2B 분야에서 벤처기업 신화가 나오지 못한다면 한국경제 발전은 한계가 뚜렷하다.

한국은 지금 케인스 시대의 영국과 너무나 흡사하다. 화웨이, 알리바바, BYD 등 창업 기업가가 주도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세습 자본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얼마 전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재벌 2세·3세들이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 하는 '아둔한'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이들에게서 한국 경제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지만 산업은행의 재판격도 예상된다. 채권 만기 연장이라는 수단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해 말 만기가 도래한 채권 1조3천억 원을 6월 말로 연장했는데 금호타이어가 6월 말 안에 이를 한 번에 다 갚을 능력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타블스타로 매각이 무산

될 경우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대해 순순히 채권 만기를 연장해 줄 이유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엔 금호타이어 노조가 산업은행에 매각 중단을 요청하면서 파업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들고 나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는 매각 작업을 서두르는 산업은행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두 차례 상경 투쟁을 전개했다.

노조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중국 타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것은 또 다시 중국에 국가 기간산업을 넘기는 것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시장점유율 30%의 업체로 기술력에서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기업을 중국에 넘기는 것은 한국 타이어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더군다나 타블스타에 매각됐을 경우 중국이 우리의 알짜 기술만 빼먹고 버리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적어도 국제은행간 산업은행이 굳이 이런 일에 앞장서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산업은행이라는 측면을 도외시한 채 산업은행이 원금 회수에만 매달리는 것은 그야말로 소탐대실일 뿐이다.

반갑다 도심공원에서 즐기는 공짜 문화공연

외국의 문화도시들을 여행하다 보면 부러운 풍경들이 있다. 명품들이 가득한 미술관 등 관광객을 사로잡는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도심공원은 선망의 대상이다. 런던의 하이드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 파리의 뒤크상부르 등이 대표적인 예다. 도심공원의 울창한 나무 그늘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광주 도심 공원에서도 자연 학습과 공연 관람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시민참여 도시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본촌공원(양산

제)·중앙공원(풍암제)·물빛공원(노대제) 등에서는 숲속 놀이터 체험이 열린다. 영산강 대상공원 시민의 숲 구간에서는 '공원으로 마실가자' 행사가 펼쳐지고, 쌍암공원에서는 '우리국가공공연체'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두암제2근린공원에서는 도자기 빚기 체험 등을 할 수 있고, 일곡공원 한새봉농생태공원에서는 모내기에서 추수까지 벼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한새봉 뚝농학교'가 개최된다. 이들 프로그램엔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5월은 날들이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도심속 공원을 찾아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기자. 분명 삶의 여유를 찾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5·18 37주년 릴레이 기고

춧물로 있는 오월



장세려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80년 오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게 5·18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방학도 아닌데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것과 아침이면 부모님이 어디론가 나가셨다가 늦은 오후가 되어야 돌아오셨다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동네방앗간에서 밥을 만들어서 보내고, 오늘은 치약, 빵 등을 차에 올려줬다는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들은 기억, 시내 집회에 나갔다가 조금 전까지 함께 이야기하던 사람이 헬기에서 쏜 총에 맞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씀에 옥상에 올라가서 놀다가 어머니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들은 기억(아마 헬기에서 기총소사했다는 즈음)과 문간방에 살던 고등학생 오빠가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

5월 여성, 다시 광장에 서다

간이 흐르고 중학생이 되어서야 남동생 당에서 5·18민중항쟁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대학생이 되고... 그렇게 5·18은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폭도라는 누명은 벗었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월 여성 생존자들을 만나볼기 전까지는...

2013년 6월 오월여성힐링캠프에 참가하면서 오월 여성생존자 선생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 갖는 자리이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공포 등으로 인해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분, 오월은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며 힘들다고 하시는 분, 마지막 새벽 도청에서 빠져나오실 때의 급박함과 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취사반 분들, 도청진입 다음날 새벽 피로 몰든 도청 앞마당을 세제로 청소하는 계엄군을 오며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는 분, 고문실에서 심정지가 와서 죽다 살아났다는 분 등등.

책으로, 문서로만 접했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역사로, 80년 오월이 한꺼번에 제게 들려들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의 아픔과 의미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유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믿기 힘들었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분들에게 80년 오월은 끝나지 않았구나,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해마다 오월이 가까워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병현상이 생기고 몸이 힘들다는 신체증상을 비롯한 평생 약과 병원에 의지하셔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고, 국가유공자로는 되었지만 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일상에서 당하는 차별이 또한 그것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국가폭력에 희생되는 사람들을 볼 때 고스란히 당시들의 일처림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며 느낍니다. 게다가 수시로 등장하는 5·18 북한군 개입설에 전두환 부부의 말도 안 되는 자서전 내용이 더해져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 80년 오월의 그날처럼 우리는 또 광장에 섰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구순의 어린까지 남녀노소 경향 각지에서 불통과 특권의식으로 국정을 혼란한 정권에 맞서 정의를 세우고자,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또다시 광장에 섰고 국민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2017년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 불의에 항거하며 정의를 세우고자 항쟁에 참여했다는 오월 여성생존자들과 함께 다시 5·18민주광장에 섭니다. 그날 진행될 오월여해 서로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유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믿기 힘들었고

양한 활동에 대해 집중하려 합니다.

80년 오월 당시 여성들은 민중항쟁 전방에 걸쳐 다양하고 주체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여성들의 활동은 주목받으려만 부각되어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두방송에 나섰던 여성들, 투사회보를 만들어 돌렸던 수많은 여성들, 민원실에서 차량통행증과 유류보급증 및 출입증, 야간통행증 등을 발급하는 민원을 담당했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도청에서 취사를 담당했던 여성들, 한철 및 간호뿐만 아니라 입관을 하고 부족한 관을 직접 구하려 다녔던 여성들, 마스크를 만들고 광주의 고통과 눈물을 외부에 알리다 모진 고초를 당하였던 이름 없는 여성들의 눈물과 노고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오월 여성시민군으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고 자랑스러운 광주의 후에로써, 당당한 여성후배들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일본군 위안부 추속함의, 한상권 위원장과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 고 백남기 농민, 고립되어 싸우고 있는 2의 광주인 성주 등 더 이상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늘 이야기하시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일구어가겠습니다. 힘든 세월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NGO 칼럼



조진상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3년 후면 광주의 많은 공원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위헌 판결로 2020년 7월로 예정된 미집행 공원의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금호지구·풍암지구 등 중앙공원 주변에는 수십만 주민들이 중앙공원 가까이 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등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들이 중앙공원 안에 있거나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역들이 더 이상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택이나 상가로 개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사실을 광주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알고도 방치했거나 선택했다면 그것은 광주시민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

공원이 사라진다

다. 그러나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공원이 송두리째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경우 이는 자칫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공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현실은 만만치 않다. 공원 토지 매수에 소요되는 2조원대의 막대한 재정을 광주시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 20년 동안 일몰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도 “바스퍼 난 후 손 흔드는” 격이다. “가장 늦었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공원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민간공원개발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몰제 시행을 목전에 둔 현실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민간공원 주변에는 수십만 주민들이 중앙공원 가까이 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등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들이 중앙공원 안에 있거나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역들이 더 이상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택이나 상가로 개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사실을 광주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고 사업추진도 원활하다. 일부 도시의 경우 업체 선정 특혜시비 및 소송 제기, 주민 또는 민간단체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민간공원방식을 도입할더라도 공익성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원주 중앙공원의 문화회관, 천안 노태산 공원의 청소년 문화센터 등 공원조성과정에서 주민 공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대구시 대구대 공원의 경우 자연 숲 보전을 위해 영계발방식을 검토중이 있다. 포항시 양학공원의 경우 포항제철이 공원면적의 절반 가량인 42만㎡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공원 보전을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마복공원, 송암공원, 중앙공원, 종의공원 등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총 면적은 수완지구 면적(463만㎡)의 2배 가량인 959만㎡에 이른다. 이 중 30%를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비공익시설 면적은 288만㎡에 이른다. 이를 다른 도시 선례를 적용해 1만㎡당 200세대 기준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5만80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된다. 이는 수완지구 건설 기준의 3.75배에 해당한다. 세대별 2.5인을 산정할 경우 입주민

수는 14만4000명에 이른다. 인구 정체 상태의 광주시가 이와 같은 주택수요를 일시에 창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원 10곳을 모두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랍적이지도 않다.

민간공원추진과 함께 우선 논의될 수 있는 것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이다. 지정요건 완화뿐만 아니라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과정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도시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중앙공원 1개소 정도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공원으로 개발이 적정하지 않은 일부 공원(영산강 대상공원, 경사도가 높고 자연상태가 양호한 공원)은 일단 공원에서 해제하되 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보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합동 TF팀 또는 자문단을 구성해 업체 선정, 공원조성 및 비공익시설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공원 인근 주민에게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개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無等鼓 오월의 신록
“신록을 대하고 있으면,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신록을 대하고 있으면,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신록을 대하고 있으면,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신록을 대하고 있으면,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김우석 주필 이홍재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정기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227-9500) (FAX 02-773-9331)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